

연안지역 문화경관 해석을 위한 문화적 기억 이론 적용방법 고찰*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Cultural Memory Theory for Interpreting Cultural Landscapes in Coastal Regions

김예림 Kim, Yelim**, 성종상 Sung, Jong-Sang***

Abstract

The cultural landscape of a coastal regions serves as a trace of humanity's adaptation and evolution to the marine environment, exhibiting several distinct cultural characteristics as compared to inland regions. Therefore, a separate system of interpretation is necessary for comprehensive understanding. In this context, this paper establishes a system of interpretation based on the recently increasing discourse on cultural memory, and examines the methods that are applicable to interpreting cultural landscapes in coastal regions.

Since cultural memory theory addresses memory at the internal, social, and cultural levels, the cultural landscape of a coastal regions can be interpreted from various perspectives within the cultural memory framework. As cultural memories are stored in media and temporarily fixed, three types of interpretation methods were employed for each type: text, arena, and performance. Considering that memory at the internal and social levels is an ongoing process that is continuously changing, an interpretation method for each stage — these being formation, storage / conversion, and transmission — was applied.

The analytical framework presented in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mpirical investigation of cultural landscapes in coastal regions. It is anticipated that this framework will facilitate the current generation's appreciation of these landscapes' values and assist in establishing a found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Keywords: Maritime Cultural Landscape, Marine Landscape, Place Identity, Heritage Management, Collective Memory, Landscape Perception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증가하는 문화경관에 관한 논의는 내륙중심 관

점에서 벗어나 지구의 2/3를 차지하는 바다의 관점에
서도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구 둘레의 37%
에 해당하는 긴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어, 국토 면적
대비 연안지역이 넓다. 이러한 넓은 연안지역을 기반
으로 우리나라는 해양환경과 인간 간 상호작용의 유

* 이 논문은 김예림(2024)의 박사학위논문 「연안지역 문화경관의 변용에 대한 해석: 부산 영도를 중심으로」의 일부를 활용·수정하여 작성한 것임.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경제전략연구본부 연구원(제1저자, 교신저자) | Researcher, Ocean Economy Strategy Department, Korea Maritime Institute | Primary Author, Corresponding Author | yelimkim@kmi.re.kr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설계학과 교수 | Professor,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 jssung@snu.ac.kr

형·무형적 산물인 연안지역 문화경관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연안지역은 내륙에 비해 높은 개발 압력,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하면서(김예림, 성종상 2023b), 장소정체성의 기반인 다수의 연안지역 문화경관이 훼손되거나 소실되었고, 이를 기억하는 사람들조차 사라져 가고 있다. 연안지역 거주인구로 대표되는 전국 어가인구는 2010년 171,191명(전국인구의 0.34%)에서 2021년 93,798명(전국인구의 0.18%)으로 거의 절반가량(-45.2%) 급감했다(국가통계포털).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을 뜻하는 고령화율도 연안지역은 32.5%로 전국 평균 13.6%에 비해 2.4배 높았다(관계부처 합동, 2018). 이에 따라 훼손되거나 급변하고 있는 연안지역 문화경관을 다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연안지역 문화경관을 해석하는 것은 인류가 해양 환경에 적응하면서 정착하고 진화한 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의 기반이 된다. 연안지역 문화경관은 내륙과는 구별되는 문화적 특징을 지니기에, 이를 해석하기 위한 별도의 해석체계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연안지역의 수중경관에 대한 역사적 기록물은 내륙경관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문화적 기억 이론에서의 해석체계를 고찰하고, 이를 연안지역 문화경관을 해석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기억 관점은 연안지역 문화경관의 형성 맥락, 가치와 의미를 제고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기억의 관점 가운데 특히 문화적 기억은 최근 몇 년간 역사학, 인문학,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주요한 연구 분야 중 하나가 되었다(Hoelscher and Alderman 2004). 여기에는 전자매체 등 기억을 저장할 수 있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 탈역사의 시대 도래(Weissberg 1999), 객관적이라고 여겨지던 공식적인 역사에 대한 신뢰 상

실(김응중 2011; 임은진 2012)과 구술사에 대한 새로운 관심 등의 이유가 작용한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적 기억 이론을 고찰하여 연안지역 문화경관을 해석하는 해석체계를 제시하는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이제까지 장소, 산업유산 또는 문화경관에 대한 해석 관련 연구들은 주로 집단적 기억 기반의 장소기억 관점을 기반으로 하였다(Lewicka 2008; Hoteit 2015; Ratcliffe and Korpela 2016; Park and Kim 2018; 박재민, 김무한 2014; 김무한, 박재민, 조성아 2018).

Lewicka(2008)는 르비우(Lviv)와 브로츠와프(Wroclaw)라는 두 쌍둥이 도시의 집단적 기억을 조사하여 장소 애착, 장소정체성, 장소기억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장소애착이 국가 또는 지역 정체성과 연관되는 정도가 두 도시의 전쟁 전 과거에 대한 기억에서 민족적 편견의 정도를 예측한다는 증거를 일부 제시하였다.

Hoteit(2015)는 레바논 남부의 호제이르 계곡(Hojeir Valley)을 대상으로 집단적 기억을 보존하고 국가적 소속감을 높이는 경관의 역할을 보여주었다.

Ratcliffe and Korpela(2016)는 회복적 인식의 예측 변수로서의 기억과 장소애착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핀란드 거주자 234명을 대상으로 장소기억 속성, 장소애착, 회복적 인식에 대해 애착장소를 평가하게 하여 장소기억의 긍정적인 정서는 회복 잠재력을 일관되게 예측했으며, 장소정체성과 장소애착 역시 회복적 지각을 긍정적으로 예측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Park and Kim(2018)은 집단적 기억 이론을 바탕으로 인터뷰 내용의 빈도 분석,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장항에 대한 기억의 장소를 추출하고 의미관계를 파악하여 시각화하였다. 이를 통해 인터뷰를 진행한 지

역주민들은 1920년부터 2010년까지 장항에 존재했던 127곳만을 회상했고,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6개의 장소 그룹이 나타났으며, 특정 장소들은 도시의 상징적 경관 속에 있을 때 더 자주 언급되고 도시 정체성에 투영되기도 함을 분석하였다.

박재민, 김무한(2014)은 집단적 기억 속 장소에 대한 기억 관점에서 장항을 대상으로 형용사를 사용해 문화경관의 구조와 특징을 해석하였다. 그 결과, 장항의 산업경관은 산업화, 한국전쟁, 탈산업화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했고, 집단적 기억은 소멸하거나 왜곡되었으며, 산업발전의 상징 이미지만 두드러졌음을 밝혔다.

김무한, 박재민, 조성이(2018)는 집단적 기억 기반의 장소기억 개념을 적용해 철원군 유곡리 통일촌을 대상으로 기억의 장소를 찾고, 해당 장소에 대한 가치와 이야기를 발굴하였다. 사진, 인터뷰와 참여관찰 조사를 통해 통일촌의 주요 기억의 장소로는 긴장의 장소(무기고, 방공호, 뒷산), 주민들의 고향인 장소(학교, 운동장), 여가와 쉼의 장소(통일랜드) 등이 있었고, 이들을 장소브랜드 요소로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적용한 장소에 대한 집단적 기억 개념은 사적 기억과 공적 기억 간의 변증법적 관계와 장소에 누적된 기억의 다층성을 간과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전종한 2013). 또한, 집단적 기억은 문화적 영역을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집단적 기억의 하위개념으로 문화적 영역을 더 강조하고,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들의 가치에 주목하게 하면서, 매체의 측면까지도 다루는 문화적 기억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문화적 기억의 관점에서는 이제까지 간과되었던 근현대 일상적 연안지역 문화경관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체에 저장된 기록과 이해관계자들이 지닌 기억을 해석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3. 연구의 방법

이 연구에서는 연안지역 문화경관에 대한 해석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문화적 기억 관련 이론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대부분의 문화경관 해석 관련 연구에서는 집단적 기억 이론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집단적 기억과 문화적 기억 관련 연구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집단적 기억과 문화적 기억의 해석체계 관련 국내외 문헌 검토를 위해 <표 1>과 같은 절차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집단적 기억과 차별되는 문화적 기억의 개념과 속성을 고찰하여 연안지역 문화경관을 해석하는 체계를 도출하였다. 또한, 문화적 기억 측면에서의 해석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연안지역 문화경관의 예시를 보여주었다.

표 1_관련 문헌 고찰 절차

절차	내용
검색어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적 기억 해석체계 관련 국외 문헌 검색어로는 'Cultural Memory Interpretation'와 'Cultural Memories Interpretation'를, 국내 문헌 검색어로는 '문화적 기억 해석', '문화 기억 해석' 설정 문화적 기억의 상위 개념인 집단적 기억 해석체계 관련 국외 문헌 검색어로는 'Collective Memory Interpretation'와 'Collective Memories Interpretation', 국내 문헌 검색어로는 '집단적 기억 해석', '집단적 기억 해석' 설정
데이터베이스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외 문헌은 Google Scholar, 국내 문헌은 DBpia, KISS 이용
문헌 선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어와 한국어 문헌, 제목에 해당 검색어가 포함된 문헌 동료심사를 거친 학술논문 위주로 선정(KCI 등재지 이상 대상) 단행본 중 인용 수 100건 이상인 일부 단행본 예외적 인용 문헌은 집단적 기억과 문화적 기억 이론을 기반으로 한 경관의 해석체계를 다루는 연구 선정
제외 기준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관 해석 연구가 아닌 문헌이나 디지털 매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제외
고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문헌 검토, 문화적 기억 이론에서의 해석체계 고찰 결과 정리

II. 주요 개념의 정의와 중요성

1. 연안지역 문화경관의 개념

1) 문화경관

‘문화’와 ‘경관’이라는 각각의 용어는 모두 인간의 행위에 의한 결과물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문화와 경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인간이 인지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문화’를 의미하는 컬처(Culture)라는 영어 단어는 초기에 동물이나 농작물의 재배(Cultivation) 및 종교적인 숭배와 관련이 있었다. 이후에 ① 예술(Arts) 또는 ② 개인/집단/사회의 지적·정신적·미학적 발전이나 ③ 특정 민족이나 집단의 삶의 양식을 나타내기 위한 용어로 변화하였다(Smith 2022, 16-17). 유사하게 우리나라에서도 문화(文化)라는 용어를 “의식주,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를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따라서 ‘문화’라는 용어는 인간의 행위에 의한 다양한 결과물의 집합체로도 볼 수 있으며, 문화는 생산, 소비, 전승 등 인간의 행위에 의해 유지된다.

마찬가지로 ‘경관(Landscape)¹⁾’이라는 용어도 다의적이며, 인간이 대상물을 인지하는 측면을 중요하게 다룬다. 경관이라는 용어는 독일어 란트샤프트(Landschaft)에서 기원했다. 란트샤프트는 “자연 상태의 토지가 아닌 ‘사람이 가꾼 토지’를 의미했다(황기원 2011, 84). 즉, 처음 경관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을 때는 주로 인간의 행위가 포함된 농촌풍경을 의미하는 단어였다. 이와 유사하게 토착 네덜란드어인 란트

샤프(Landschap)는 “농장이나 울타리를 친 평원 또는 소규모 사유지나 행정 단위의 집합”을 의미했다(Tuan 2011, 205). 인문지리학의 대가 이 푸 투안(Yi-Fu Tuan)은 ‘경관’이 자연을 뜻하는 용어이고, “특수한 입각점에서 바라본 전망”을 의미한다고 하였다(Tuan 2011, 203-205). 즉, 경관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가 아니라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물을 의미하는 용어이면서, 인간이 지각하는 ‘관점’에 주목한다.

이와 유사하게 “환경-인간 사이의 상호작용, 그리고 그에 따른 유·무형적 문화·역사·사회적 흔적”을 말하는 ‘문화경관’이라는 용어 또한 인지적 측면과 변화의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다(김예림, 성종상 2023a, 127). 문화경관은 자연 그대로가 아니라 “자연경관이 인간의 생존과 경작 활동으로 변화되거나 인간이 특정 목적을 위해 만든 경관”이라고 정의된다(오정심 2023, 165). 문화경관의 하위개념에는 도시경관, 농촌경관, 언어경관 등이 있으며,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되는 과정이 누적된 결과물이자 변화하는 대상이다(배연한, 강동진 2017). 따라서 ‘문화경관’은 경관의 문화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인간 행위의 결과물과 그 변화의 과정을 해석하는 데 가장 적절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2) 연안지역 문화경관의 해석체계

연안지역 문화경관은 “연안지역이나 해상·해중에서 발견되는 해양환경과 인간 간 상호작용의 유·무형적 산물”로 정의된다(김예림, 성종상 2023a, 136). 이 연구에서 말하는 연안지역 문화경관은 김예림, 성종상(2023a)이 고찰한 해양문화경관의 개념의 하위개념으로, 연안지역²⁾에 국한된 개념이다. 해안선과 더 가까운

1) 경관은 장소정체성을 만드는 요소 중 하나이며, 물리적인 환경과 무형적인 활동 경험을 제공하기도 함(김예림, 손용훈 2017).

2) 연안지역이란 해안선과 인접한 연안육역과 연안해역을 포괄하는 공간을 말하며, “연안 11개 시도, 74개 시군구에서의 연안해역(바닷가, 바다)과 연안육역(무인도서 또는 연안해역의 육지 쪽 경계선으로부터 500m(항만, 국가어항, 산업단지의 경우 1km) 이내의 육지지역”을

해역과 육역의 문화경관을 의미한다.

영어권 나라에서 연안지역 문화경관을 의미하면서 통용되는 용어로는 베스테르달(Westerdahl)의 '해양문화경관(Maritime Cultural Landscape)'이 있다. 다만, 해양문화경관이라는 용어는 해양고고학 분야에서만 주로 사용되면서 아주 오래된 해양유적을 조사하는 연구들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김예림, 성종상 202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안선에서 더 가까운 지역에서 인간의 삶과 공간·시간적으로 더 밀접하게 연관된 근현대의 일상적 문화경관까지 다룰 수 있는 '연안지역 문화경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계속해서 변화하는 연안지역 문화경관을 해석한다는 것은 경관 안에 내재된 숨은 의미와 양상을 찾아내는 '풀이의 과정'이다. '경관해석(Landscape Interpretation)'은 '경관 분석(Landscape Analysis)'과는 달리 시지각을 포함한 모든 감각을 총동원하는 통각(統覺)의 관점에서 경관 변화 과정의 양상과 기제에 초점을 맞추는 개념이다(황기원 2011, 23). 따라서 해석체계는 심도 있는 경관해석을 위한 실질적인 적용 방법을 뜻한다.

종합하면, 연안지역 문화경관의 해석체계는 '연안 지역이나 해상·해중에서 발견되는 해양환경과 인간 간 상호작용의 유·무형적 산물을 심도 있게 해석하기 위한 적용 방법'을 의미한다.

2. 문화적 기억의 정의와 중요성

문화적 기억이란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현재와 과거의 상호작용"으로 정의되며, 이러한 정의는 개인의 기억부터 집단별 기억, 특정 의도로 만들어진 국가적 기억, 초국가적인 '기억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의 기억을 다룰 수 있게 한다(Erl 2008, 2). 모리스 알박스

(Maurice Halbwachs)에서 얀 아스만(Jan Assmann)과 알레이다 아스만(Aleida Assmann)을 거치면서 진화된 문화적 기억에 대한 논의는 "더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들의 가치에 주목"하게 만들었다(서영호 2022, 152). 이러한 이유로 문화적 기억은 일상적인 연안지역 문화경관을 해석하는 관점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문화적 기억의 관점에서는 다각도에서 근현대 일상적 연안지역 문화경관을 해석할 수 있다. 문화적 기억 이론에서는 내면적, 사회적, 문화적 차원의 기억을 다룬다. 그중 집단으로 형성된 기억은 구두 의사소통(소통기억)과 정보의 물리적 기록(문화적 기억) 등 두 가지 채널에 의해 유지되며(Candia, Jara-Figueroa, Rodriguez-Sickert and Barabási et al. 2019), 문화와 기억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객관화된 문화는 기억의 구조를 갖는다는 관점은 얀 아스만이 말하는 '문화적 기억(Cultural Memory, Kulturelles Gedächtnis)' 개념의 기반이다. 일부 학자(Casey 2000; Sather-Wagstaff 2015)들은 사회적이고 담론적인 구성으로 여겨지는 '문화경관' 자체도 내면적, 사회적, 문화적 기억과 연결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기에 연안지역 문화경관에 대한 해석 관점으로 문화적 기억을 적용한다면 다각도에서 내면적,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서 해석해 볼 수 있게 된다.

문화적 기억은 알박스의 집단적 기억(Collective Memory)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집단적 기억 속성들의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사회학에서의 장소와 기억 간 관계에 대한 활발한 논의는 프랑스의 사회학자 모리스 알박스의 집단적 기억 개념에서 파생된 것들이다(전종한 2013). 알박스는 집단적 기억이 본질적으로 현재에 비추어 과거를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최초의 사회학자였다(Halbwachs 1992). 과거에 대한

말함(김예림, 성종상 2023a, 131-132).

개념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신적 이미지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알박스의 집단적 기억 개념은 기존에 단순히 인간 두뇌의 기능으로 이해했던 '기억'을 사회적인 차원으로 확장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Assmann J. 2006). 그는 기억이 사회적 틀 내에서 구성되는 것이고(임은진 2012; Molden 2016), 개인이 자신의 기억을 형성, 생략, 왜곡, 회상, 재구성하는 방식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한다고 하였다(Thelen 1989).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든 외부에서 프로그래밍되지 않은 기억을 공유할 수 있는 집단적 역량이 없으므로(O'keeffe 2016), 개인이 지닌 기억조차 개인만의 기억이 아니라는 것이다.

얀 아스만은 문화적 기억의 하위영역으로 전통, 전승(Transmissions), 전이(Transferences) 영역을 포함했지만, 알박스는 집단적 기억의 개념과 이 영역들을 분리하였다는 데 차이점이 있다(Assmann J. 2011; Meusburger 2011; Molden 2016). 또한, 얀 아스만은 알박스의 집단적 기억 개념을 '일상적 기억(또는 소통 기억)'과 '문화적 기억'으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알박스가 배제한 문화적 영역(Cultural Sphere)을 또 다른 기억의 유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얀 아스만은 알박스의 집단적 기억 개념을 확장/희석/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유형의 서로 다른 기억하는 방식(Modi Memorandi, Ways of Remembering)으로 구별하였다. 특히, 아스만 부부는 홀로코스트와 같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직접 경험하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들의 기억을 매체에 저장하여 보존하는 현상에 주목했다(윤택림 2013).

이런 맥락에서, 근현대 일상적 연안지역 문화경관을 해석하는 데에는 문화적 기억 이론을 기반으로 한 해석체계 적용이 필요하다. 문화경관은 주체의 인식과 관점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억은 문화경관의 가

치와 의미를 재조명하는 데 핵심적이다. 최근에는 특히 장소와 그 경관을 둘러싼 주체의 인식과 관점에 중점을 둔 '기억'이 강조되고 있다. 현대의 경관연구는 주관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전의 객관성만을 중시했던 관행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과정과 가치 간의 상호관계를 강조한다(Jacques 1995). 경관은 "주체의 정신적 작용의 산물"이며(성종상 2020, 50), 개인이 경관을 인식하는 방식은 강력한 '주관적 필터'의 영향을 받는다(홍금수 2009). 특히, 문화적 기억은 매체에 저장되어 집단의 정체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문화경관을 해석하는 데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문화적 기억은 일상적인 문화경관에 주목하게 하면서 현재와 과거의 상호작용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근현대 일상적 연안지역 문화경관을 해석하는 데 유효한 관점으로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근현대 관련 연안지역 문화경관은 아픔의 역사인 일제강점기를 상기시켜 일제 청산이라는 의도적인 목적으로 대체된 경우가 많다. 또한, 일상적인 연안지역 문화경관의 경우에는 그 가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개발을 위해 소멸, 훼손, 또는 대체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의미가 있으면서 지역적 가치가 있는 현존하는 근현대 일상적 연안지역 문화경관을 직접 경험했거나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의 기억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과거의 의미를 전승하고 과거와의 유대를 활성화하는 '매체'(이도담 2017)는 문화적 기억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요소이다. 문화적 기억 이론에서 언급하는 매체는 전통적인 문헌뿐만 아니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영상, 그리고 장소와 경관까지 모두를 포함한다. 알레이다 아스만은 "매체는 문화적 기억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물질적 기반이면서 보조수단으로, 인간의 기억들과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하면서 매체를 강조

하였다(Assmann A. 2017, 22). 이 관점에서 “장소는 사람들에게 문화적 기억을 전달하는 매체”로 작용한다(윤현호, 이훈, 송영민 2011, 281). ‘장소’는 모바일을 통한 문자나 이미지와는 다른 기억의 매체(Medium of Memory)로서, 위치가 변하지 않는 특징을 지니면서 일시적인 기억을 물질로 받쳐주는 영구적인 지지대(Anchor)이다(Assmann A. 2011). 경관 또한 정체성 구축과 공간의 정치화를 나타내는 중요한 매체(Medium) 이면서(Claval 2016)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변형, 적용에 반응할 수 있는 매체이다(Waldheim 2018).

장소와 경관이라는 매체에 저장된 고유한 이야기들은 역사문화적 성격을 지닌 문화적 기억의 한 유형이다(윤현호, 이훈, 송영민 2011).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장소와 경관, 그리고 그에 관한 이야기가 출판물이나 인터넷과 같은 매체를 통해 자주 노출되거나, 사람들 간에 방문과 관련된 문화적 기억이 온오프라인에서 공유되면서 새로운 의미가 생성될 수도 있다. 따라서 사람들 간에 공유·생산·전송되는 장소와 경관에 관한 이야기를 문화적 기억의 관점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종합하면, 문화적 기억은 ‘집단적으로 형성·공유되는 기억이 다양한 매체에 저장되어 일상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게 만들며, 긴 시간 동안 전송되는 기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기억은 문헌, 영상, 음성, 박물관, 기념관, 온라인 게시물, 장소, 경관 등 다양한 매체에 기록 저장되어 집단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III. 문화적 기억의 속성

1. 다차원 속성

문화적 기억 이론은 내면적, 사회적, 문화적 등 다양한 차원을 다룬다는 속성이 있다. 문화적 기억 이론에

서는 내면적 차원(Inner Level)에서의 개인적 기억, 사회적 차원에서 3세대 정도의 기간 동안 구두로 전송되는 회상을 말하는 소통적 기억, 문화적 차원에서 규범적인 텍스트에 기반하여 더 넓은 범위의 시대를 포괄하는 문화적 기억 등을 다룬다(<표 2> 참조).

과거는 유물·흔적·개인적 기억의 퇴적물과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이중적인 형태로 존재한다(Assmann J. 2011). 이와 관련하여 알박스는 집단적 기억 개념을 주장하면서 개인의 기억도 결국은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누적된 사회적 구성물이라고 설명했다(Halbwachs 1992). 집단이 공유하는 기억은 문화적 정체성의 기본이 된다(West 2011). 따라서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과거’는 사회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사회, 집단, 개인에게 일종의 연결 구조를 전달한다(Weissberg 1999). 다시 말해, 개인이 보유한 기억이나 이미지조차도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 시각과 권력에 의해 형성된 것임을 의미한다(김홍중 2008). 인간의 ‘기억’은 개인·집단적 차원에서 ‘시간’과 ‘정체성’의 합성을 가져온다. 이러한 시간, 정체성, 기억의 연계는 내면적, 사회적, 문화적 등 세 가지 차원(Level)에서 작용한다(Assmann J. 2008; <표 2> 참조).

표 2 문화적 기억의 다양한 차원

차원	시간	정체성	기억
내면적	내면의 주관적 시간	내면의 자아	개인적
사회적	사회적 시간	사회적 자아/역할을 하는 개인	소통적
문화적	역사적, 문화적 시간	문화적 정체성	문화적

자료: Assmann, J. 2011, 16을 인용하여 저자 수정.

내면적 차원에서의 기억은 개인의 신경심리적 체계로, 1920년대까지는 유일한 기억의 유형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내면적 차원의 기억은 개인에게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다. 다른 사람에게 말로 전달하여 공

유하거나 매체에 기록하지 않는 이상 개인의 내면에만 머무는 기억으로, 이러한 일상적인 기억은 좁은 의미에서 '문화적 특성'이 결여된 기억을 말한다. 일상적인 기억은 자전적 기억의 틀 속의 역사이자 최근의 과거를 말하며 기억이 발생한 특정한 시점이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Welzer 2008; West 2011).

사회적 차원에서의 기억은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기억으로, 동등하거나 비슷한 위치 사람들끼리의 일상적 소통에 의한 집단적 기억을 말한다. 집단적 기억, 그리고 파생 개념인 문화적 기억에서 인간의 기억은 사회와의 소통에 의존하며, 기억은 사회생활의 기능으로 분석될 수 있다. 기억은 인간이 집단과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며, 집단과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면서 인간은 기억을 구축하게 된다(Markowitsch 2008; Middleton and Brown 2011). 이 일상적 형태의 집단적 기억을 의미하는 사회적 차원 기억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제한된 시간적 지평(Limited Temporal Horizon)이다(Hirst, Yamashiro and Coman 2018). 모든 구술사(Oral History)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지평은 80년에서 최대 100년 이상의 과거로 확장되기는 힘들다(Manier and Hirst 2008). 사회적 차원의 기억은 어떤 학습, 전승, 해석의 제도에 의해 지원되지 않고, 전문가에 의해 배양, 소환, 기념되지도 않으며, 일상적인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내에 있기에 형식화되거나 안정화되지 않아 지속시간이 상당히 제한적이다(Rigney 2005).

문화적 차원에서의 기억은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기억이다. 또한, 역사적 과거의 사건을 담고 있으면서 기억이 발생한 특정한 시점이 있는 기억을 말한다(Zierold 2008). 내면적 또는 사회적 차원의 기억이 문화적 차원이 되면서, 일상적인 기억에 불과했던 기억들이 매체에 기록 및 저장되면서 수백 년 또는 수천 년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문화적 차원의 기억에 이르게 되면, 기억에 의한 '정체성의 확립'과 '재구성 역량

이 생긴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정체성의 확립'은 문화적 기억을 통해서 집단 구성원이 통일되면서도 다른 그룹과 구분되는 특이성(Peculiarity)을 공유하는 지식을 저장하는 특성을 말한다. 즉, 문화적 기억을 통한 공유 지식으로 인해 다른 집단과 차별화되는 정체성이 확립되게 된다. 문화적 기억은 이러한 지식을 공급하면서 그 집단에 소속된 사람과 소속되지 않은 사람을 뚜렷하게 구분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다.

문화적 차원의 기억은 '재구성 역량(Capacity to Reconstruct)'을 지니는데, 이는 모든 기억이 과거를 완벽하게 보존할 수는 없다는 특징과 관련이 있다(Assmann J. 1995). 사람들의 기억은 각 시대의 사회가 당대의 준거 틀 안에서 무엇이 재구성될 수 있는가를 선택한 결과이다(Erll 2008). 이러한 이유로 문화적 차원의 기억은 실제 역사적인 사건과 연결되어 있지만, 기억은 재구성되어 작동하기 때문에 실제 사건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 유형적 속성

문화적 기억은 음성, 문자, 행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언어'의 형태로 매체에 저장되고 전승·형성되기에(Fortunati and Lamberti 2008), 이를 유형별로 해석할 수 있다. 문화적 기억은 오래전에 발생하여 간접적인 텍스트, 아이콘, 춤, 의식, 공연 등의 매체를 통해 전승되는 기억이다.

문화적 기억은 제도적(Institutional)인 특성이 있다. 내면적 차원의 기억과는 대조적으로, 문화적 차원의 기억은 전승될 수 있는 물리적 또는 비물리적 형태를 갖추고 있다. 문화적 기억은 말의 소리나 몸짓과는 달리 안정적이고 상황을 초월하는 상징적 형태로 외부화되며, 객관화되어 저장된다. 역사적 기억(Historical Memory)과 마찬가지로 문화적 기억은 실

제 사건이 토대가 되고, 결과적으로는 “실제 사실”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이미지, 상징, 정서가 만들어진다(Rodriguez and Fortier 2007). 이렇게 만들어진 문화적 기억은 한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이전되거나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달될 수 있게 된다(Rigney 2005).

일상적인 기억과 달리 문화적 기억은 체화되지 않는데, 기억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기억의 상징적 형태가 보존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순환되고 재구현(Re-embodied)되어야만 한다(Assmann J. 1995). 문화적 기억은 특정한 각 시대의 사회에 재사용할 수 있는 텍스트, 이미지, 의식의 본체로 구성된다. 한 사회 또는 집단이 공유하는 문화적 기억이 구축(Cultivation)되면, 해당 사회의 자아상을 안정시키고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집단지식을 기반으로 각 그룹은 단일성과 특수성에 대한 인식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문화적 기억의 특징 및 속성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문화적 기억이 저장되는 전통적인 문헌에서부터 온라인 게시글과 영상까지도 모두 기록매체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문화적 기억 측면에서 연안지역 문화경관을 해석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드와이어와 알더만이 제시한 텍스트(Text), 아레나(Arena), 퍼포먼스(Performance) 등 세 가지 유형³⁾을 적용하였다(Dwyer and Alderman 2008; <표 3> 참조). 지리학 측면에서 기념경관을 해석하는 드와이어와 알더만의 세 가지 개념적 렌즈이자 유형을, 알레이다 아스만은 유사하게 문자적(Writing), 공간적(Spatial), 일시적(Temporal) 등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Assmann A. 2011). 기념경관은 사람들이 과거를 기억하고 해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데, 연안지역 문화경관도 과거를 기억하고 해석하는 데

표 3_해석을 위한 Dwyer and Alderman(2008)의 3가지 유형

구분	내용
텍스트 (Text)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억이 (재)각인되는 역동성에 주목 텍스트의 내용과 형식, 쓰기 과정의 비판적 독해 중요
아레나 (Are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관의 역량에 초점 역사적 재현은 권력의 산물이자 도구/자원 과거와의 연결을 제시/표현하는 방법 강조
퍼포먼스 (Perform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적 행위, 기념 의식, 문화적 전시 강조 재연의 무대 역할을 하는 방식에 주목

자료: Dwyer and Alderman 2008; 김병완, 김영재 2020을 참고하여 저자 수정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텍스트(Text)’ 유형은 기억이 공간에 (재)각인되는 역동성뿐만 아니라 기념경관의 내용과 형식에서 목소리를 내거나 침묵하는 역사와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독해를 강조한다. 페이지에 단어를 새기는 것과 유사하게, 텍스트 접근방식은 기념(Commemoration)을 경관 위에/경관을 통해 이야기를 표현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기념경관을 텍스트로 해석할 때 ‘쓰기(Writing)’ 과정의 역동적이고 해석학적 조건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텍스트 유형에서는 이야기를 표현하고 저장한 결과물인 기록에서 텍스트가 쓰인 내용과 형식, 그리고 쓰기 과정의 역동성에 주목하면서 비판적으로 독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드와이어와 알더만은 텍스트 유형에서 기억의 장소가 다른 기억 텍스트와 어떻게 비교되는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고 제시하면서 춤과 음악 등도 텍스트로 보았다. ‘텍스트’ 유형은 해석되어야 하는 문화경관 자체를 의미한다(김병완, 김영재 2020). 예일대 사회학과 교수이자 문화사회학 연구소 부소장인 필립 스미스(Philip Smith)는 현대에 와서는 문화나 사회생활을 해석되어야 하는 일종의 “‘텍스트’로 보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라고 하였다

3) 이 연구에서는 Dwyer and Alderman(2008)이 경관을 해석하기 위한 ‘메타포(Metaphor)’라는 용어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유형’으로 번역함.

(Smith 2022, 308). 이 논문에서의 텍스트는 형성되고 변용되는 연안지역 문화경관에 대한 전통적인 문헌뿐만 아니라 온라인 게시 글이나 영상매체에서 표현·저장되고 있는 내용들도 모두 텍스트로 다루었다. 경관 너머의 문화까지도 해석하기 위해서는 기록을 살펴보아야 하며, 이러한 기록은 견고한 증거를 제공하면서 심도 있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Holdsworth 1997). 따라서 이 논문에서 연안지역 문화경관에 대해 해석할 때는 기록에 저장된 텍스트를 해석하였다.

‘아레나(Arena)’ 유형은 경관에 대한 역사를 기억하게 하고 이를 재현하는 무대 자체를 강조한다. 일부 경관은 국가 건설과 문화 형성에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져(Claval 2016), 의도적으로 지명으로 남기거나 기념경관으로 만들어 더 많은 사람과 기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경관은 과거를 물리적으로 존재 하면서 사람들에게 의미를 부여하게 만들고(Winter 2016),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Picard 1997). 그래서 기념경관은 사회집단이 무엇을 기념하고, 어떤 부분을 대중에게 공개할지에 대한 토론과 협상의 ‘장소’이다. 집단적 기억을 위한 기념경관의 무대 역할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무대를 통한 역사적 재현은 사회적 권력의 결과물일 뿐만 아니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이다. 권력의 개입을 강조하는 ‘아레나’ 유형은 대중에게 과거와의 연결을 제시하거나 표현하는 방법을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유도한다. 이 유형은 장소와 그 주변 경관의 역량에 중점을 두어 수많은 기억 중 어떤 기억을 보전할지에 대한 토론의 장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연안지역 문화경관의 해석 시, 기록에 저장된 공간에 대해 살펴보았다.

‘퍼포먼스(Performance)’ 유형은 경관을 구성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데 있어 신체적 행위, 기념 의식, 문화적 전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여기면서 신체 자체를 기억의 장소로 간주한다(Dwyer and Alderman 2008). 이 유형은 드라마, 의식, 역사적 재연, 행사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공연을 위해 경관이 무대 역할을 하는 방식에 주목한다. ‘퍼포먼스’는 특히 문화유산관광 측면에서 중요하게 여겨진다. 장소에 대한 감정은 지식의 영향을 받는다(Bollnow 2011). 이 맥락에서 문화유산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관광객은 역사적 가치를 중요시하고, 최대한 경관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하며, 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Teo, Khan and Abd Rahim 2014). 문화유산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기억을 해석하는 행위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해설은 관광객들의 감정을 자극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주인의식을 고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Timothy 2021). 일상적인 기억이 문화적 기억으로 전환되면 퍼포먼스 등의 ‘높은 차원의 의식적인 의사소통’의 형태가 만들어진다(Assmann J. 1995). 따라서 ‘퍼포먼스’를 기록을 해석하는 유형 중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 퍼포먼스 유형은 행위나 의식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문화적 기억의 퍼포먼스 유형에서는 연안지역 문화경관에 대한 기억 행위에 주목했다.

3. 과정적 속성

문화적 기억은 형성, 저장/전환, 전승 등 과정적 속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안지역 문화경관에 대한 문화적 기억을 과정별로 살펴보았다(<표 4> 참조).

표 4_문화적 기억의 과정적 속성

과정	형성	→	저장/전환	→	전승
내용	일상적인 기억이 문화적 기억을 형성	→	기억이 매체에 저장/특정 사건으로 인해 기억이 전환	→	기억이 전승 (다음 세대/다른 집단)

‘형상’ 과정은 문화적 기억의 전승을 위한 전제 조건인 기억의 객관화 또는 결정화(Crystallization)를 의미한다. 일상적인 기억이 문화적 기억으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특정 사회집단 내에서 ‘공유되는 과거(Shared Past)’가 객관화되는 과정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Erll 2008). 기억(Memory)은 과거를 기억(Remember), 창조, 재창조하는 역량을 말하는데(Rodriguez and Fortier 2007), 개인의 내면적 기억 또는 단순히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공유되던 기억을 수천 년 동안 지속되게 만드는 것이다. 시대의 증인들이 가진 경험적인 기억이 미래에 소실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기억이 객관화된 문화로 ‘형상’되어야 한다. 문화제도적으로 지정된 유산 관점에서 집단적으로 공유되는 기억의 객관화 또는 결정화 과정은 기억이 전승되기 위한 기본 전제이다. 문화적 기억의 안정적인 형성은 문서 기록뿐만 아니라 기념물(Monuments), 기념관(Memorials), 이미지, 의식(Rituals) 등과 같은 매체에서도 가능하다(Hirst, Yamashiro and Coman 2018). 그러므로 문서 기록의 형태가 만들어지기 훨씬 전에 문화적 기억의 객관화 또는 결정화하는 ‘형상’ 과정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문화적 기억의 형성을 통해 일상적인 소통의 영역에 있던 기억이 객관화된 문화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그 특징이 변한다. 비전문적이고 체화된 일상적 기억은 문화적 기억으로 변하면서 비일상적이고 전문화되며 체화되지 않은 형태로 특성이 모두 변화하게 된다.

‘저장’ 또는 ‘전환’ 과정은 두 과정이 모두 일어날 수도 있고, 전환되지 않고 저장 과정만 거칠 수도 있다. ‘저장’ 과정은 일상적인 기억이 문화적 기억으로 조직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조직된다는 것은 ‘1) 소통의 제도적 지지와 2) 문화적 기억 보유자의 전문화를 의미한다(Assmann J. 1995). 일상적인 기억에 대한 참여의 분포와 구조는 산만해서 이와 관련한 전문가가 없다. 대조적으로 문화적 기억은 전문화된 실천을

통해 매체에 저장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제도화된 텍스트가 되고 전문가가 ‘배양’된다.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기억은 행사나 의례 등을 통해 안정화되고, 이러한 문화적 기억에 대한 전문가가 존재한다(Zierold 2008).

‘전환’ 과정에서 전환(Transitions)과 변용(Transformations)은 문화적 기억의 역학(Dynamics)을 설명한다. 사람들은 역사 속 과거에 대해 현재를 설명하는 고정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는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니다(Molden 2016; Meusburger 2011). 마찬가지로 문화적 기억도 고정되고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유형의 기억이 문화적 기억으로 전환되거나, 또는 문화적 기억이 변형되어 다른 유형의 기억이 되기도 한다. 현실에서 기억과 유산(Heritage)은 고정되거나 정적인 것이 아니라, 해당 사회의 역사적 맥락과 조건에 종속되어 역동적으로 변화한다(Sather-Wagstaff 2015). ‘전환’의 전형적인 두 가지 방향 중 하나는 ① 소통적 기억에서 문화적 기억으로의 전환이고, 다른 하나는 ② 문화적 기억 내에서 후방에서 최전방으로, 주변에서 중앙으로, 잠재성에서 실현으로, 또는 이 방향들이 반대로(Vice-versa)도 변형되는 것이다(Assmann J. 2011). 즉, 전자는 일상적인 기억이 문화적 기억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하고, 후자는 문화적 기억 내에서 더 중요한 문화적 기억으로 부각되거나, 잠재력만 가지고 있던 문화적 기억이 실현되는 단계로 가는 등의 전환을 말한다.

‘전승’ 과정은 문화적 기억이 매체에 저장되어 다른 집단 또는 다른 세대로 확산되는 것이다. 서구 사회의 주요 이슈는 이제까지 역사에서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던 홀로코스트 생존자나 제2차 세계대전 참사 목격자들의 내면적 기억을 어떻게 보전하고, 후대에 전승할 수 있는 유형의 문화적 기억으로 전환하는가이다(Assmann A. 2010). 서구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을 겪었던 생존자와 목격자들, 그리고 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남겨진 경

관들을 보고 자랐던 사람들의 기억을 보존하고 전승할 수 있는 형태인 문화적 기억으로 전환하는가에 대한 과제가 남아있다.

얀 아스만의 문화적 기억은 “인간 기억의 외부 차원(Outer Dimension)”으로 정의된다(Rodriguez and Fortier 2007, 1). 기억이 인간의 내부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외부 차원으로 매체에 저장되고 전승될 수 있는 형태가 된다. 결과적으로, 한 사회가 문화적 기억을 통해 다음 세대로 집단지식을 보존하여 문화적 연속성을 보장하고 후세대가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재구성할 수 있게 된다.

IV. 연안지역 문화경관의 해석체계 도출 및 적용

1. 연안지역 문화경관의 해석체계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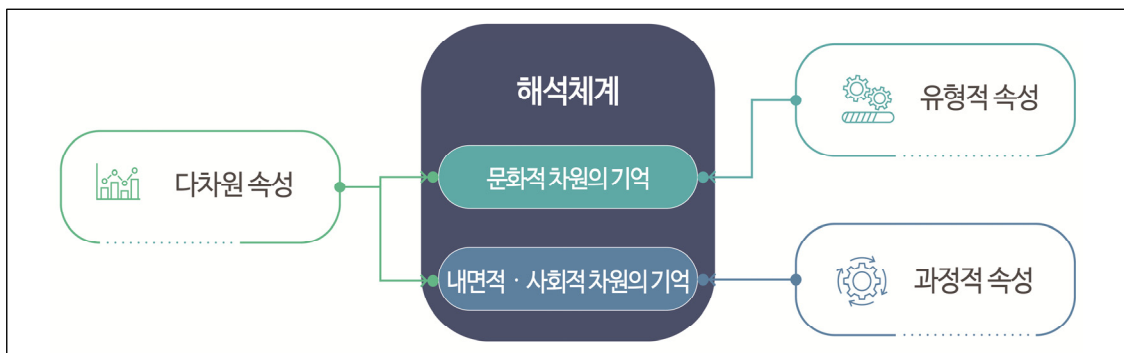
연안지역 문화경관을 해석하기 위해 문화적 기억의 다차원, 유형적, 과정적 속성을 기반으로 해석체계를 도출하였다(<표 5> 참조). 장소와 그 흔적은 문화적 삶의 역동성으로 인해 “본질적으로 정적이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한다(Anderson 2013, 290). 장소와 흔적

으로서의 문화경관은 계속해서 변화하기에, 인간 활동의 결과물이 매체에 저장된 상태와 더불어 변화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한다.

문화적 기억은 내면적, 사회적, 문화적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Assmann J. 2008; West 2011). 문화적 차원의 기억은 매체에 저장되면서 일시적으로 고정된 형태의 문화적 기억으로 볼 수 있다. 알레이다 아스만이 말하는 현재와의 활성적인 관계가 끊어져 매체에 고정된 형태의 기억이기에 유형별 속성을 적용하였다. 제도화된 문화적 차원의 기억은 유형적으로 드와 이어와 알터만이 말하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고 할 수 있으며, 객관적 형식으로 저장되어 전승 또는 일부 전시되기도 한다.

한편, 내면적·사회적 차원의 기억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현재진행형 문화적 기억으로 볼 수 있다. 현재와의 활성적인 관계로 인해 변화하는 살아있는 기억이기에 과정별 해석 방식을 적용하였다. 내면적·사회적 차원의 기억은 각 개인이 기억을 형성하고 저장 또는 전환한 구조로 특정한 형태 없이 회상을 통해 재현되는 문화적 기억으로 볼 수 있다(<표 5> 참조).

표 5_연안지역 문화경관의 해석체계



구분	내용
문화적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적 속성) 유형적으로 텍스트, 아레나, 퍼포먼스로 구성 → 객관적 형식으로 저장되어 전승·전시
내면적·사회적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정적 속성) 각 개인이 기억을 형성, 저장/전환, 전승하는 구조 → 특정한 형태 없이 회상을 통해 재현

2. 연안지역 문화경관의 해석체계 적용

연안지역 문화경관에 대한 다양한 면모를 다각도에서 살펴보기 위해, 문화적 차원의 기억은 제도적으로 저장·공유되고 있는 기록과 박물관 관람·투어 프로그램 참여 등의 현장답사를 통해, 내면적·사회적 차원의 기억은 이해관계자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여러 차원의 기억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다. 두 가지 방법론은 상호보완적인 특성이 있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내면적·사회적 차원의 기억은 회상에 의지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주관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기억은 망각, 변질, 축소, 확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김응중 2011). 한편, 개인

의 내러티브가 공적 자료를 해석하는 데 숨을 불어넣을 수 있으나, 공적 자료 없이 심층 인터뷰만 수행한다면 매체에 저장된 상태의 문화적 기억을 포괄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처럼 이 논문에서는 기록 해석과 현장답사, 그리고 심층 인터뷰를 병행하여 각각의 방법론의 한계를 보완하여 균형감 있는 관점에서 바라보았다(<표 6> 참조).

구체적으로, 문화적 차원의 기억은 연안지역 문화경관에 대한 기록을 수집하고 현장을 답사하여 텍스트, 아레나4), 퍼포먼스 등 유형별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는 전통적인 문헌이나 최근 생성된 온라인 매체 등 다양한 기록에 저장된 문화적 차원의 기억을 파악한다. 기존 경관 연구에서는 오랫동안 기억을 저

표 6_연안지역 문화경관의 해석체계 적용



구분	저장된 매체	해석 방식	수집 방법
문화적 차원의 기억	→ 문헌·영상 등 기록에 저장	→ 유형별 해석 (텍스트, 아레나, 퍼포먼스)	→ 기록 수집 · 현장답사
내면적·사회적 차원의 기억	→ 이해관계자 개인의 기억 속에 저장	→ 과정별 해석 (형성→저장/전환→전승)	→ 심층 인터뷰

4) 아레나 측면에서 지명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함. 지명은 과거와 연결하는 역할을 하면서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을 반영하거나 구축할 수 있기에(Helleland 2012) 공간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짐. 지명은 집단적 기억을 반영하여 사실 자체가 사라진 이후에도 지명에 보존된 기억은 그 중요성과 관심을 보존하게 해줌(Milo 2010). 여기서 지명은 거주민들이 해당 지역/자연을 다른 것들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름임. 따라서 지명에는 지역 사람들의 정신과 언어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회·문화·지리·역사적 흔적들이 반영되어 있어 지역을 심도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됨(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 비슷한 맥락에서 베스테르달(Westerdahl 1992)은 해양문화경관의 문화적 측면에서의 주요 구성요소이자 해양고고학 조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명경관이라고 함.

장한 기록을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경관을 분석해 왔다. 과거에 대한 공식적인 문헌 기록들은 제도적으로 축적되었기에 신뢰성을 획득하였으며, 연안지역 문화경관을 해석할 때 빠뜨려서는 안 될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객관적이라고 여겨지는 문헌뿐만 아니라 온라인 매체는 외부 개입에 의한 최근의 변용을 파악하는데 함께 검토해야 할 자료이다. 과거에 대한 기억은 기록과 박물관 등에 저장되는 과정에서 많은 경우 생략되거나 어떤 경우에는 편집되면서 맥락을 잃고 변질되기도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심층 인터뷰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내면적·사회적 차원의 문화적 기억은 이해관계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형성, 저장/전환, 전승 등 과정별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해관계자들의 내면적·사회적 차원의 기억을 살펴보면 연안지역 문화경관의 결과만을 이해하려는 방법론을 보완할 수 있다. 또한, 기록이나 현장답사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일상적인 경관과 삶에 관한 새로운 이야기도 찾아낼 수 있다. 최근 문화경관을 해석할 때 공식 기록뿐 아니라 개인의 기억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서영호 2022). Eri(2008)은 한발 더 나아가 개인적 기억을 청취하면 기록매체에 담겨있는 기억을 해석하는 데 유용하다고

까지 언급하고 있다. 최근 공식적인 기록도 결국엔 기록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다는 시각(김응중 2011; 임은진 2012; Assmann A. 2017)이 제기되면서 개인들이 지닌 기억도 문화경관을 해석하는 신뢰성 있는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심층 인터뷰는 단순히 생략된 기록을 보충하는 차원이라기보다, 역사라는 거대한 담론에서 소외된 일반 시민들에게 내재한 또 다른 사실들을 발굴하는 과정이다(채영희 2021).

문화적 차원의 기억은 텍스트, 아레나, 퍼포먼스 등 유형별로 해석하여 연안지역 문화경관의 변화 '양상'을 파악한다(<그림 1> 참조). 그리고 내면적·사회적 기억은 형성, 저장/전환, 전승 등 과정별로 분석하여 연안지역 문화경관의 변화 '과정'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연안지역 문화경관의 변화 '요인'을 분석하고, '근원적 요인'과 '세부적 요인'으로 나누어 심도 있게 해석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3. 연안지역 문화경관의 해석체계 적용 사례

문화적 기억 이론 기반의 연안지역 문화경관의 해석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사례 예시는 <표 7>과 같다. 문화경관은 크게 유형 문화경관과 무형 문화경관

그림 1_연안지역 문화경관의 해석체계 적용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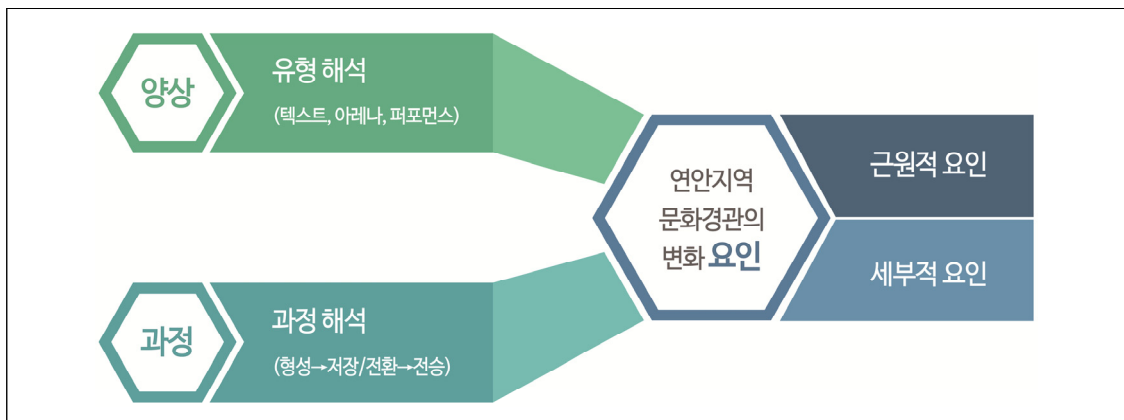


표 7_연안지역 문화경관 사례

구분	내용	
유형 문화경관	자연경관	지질공원, 주상절리, 해상국립공원 등
	산업경관 및 시설물	항구, 항만, 도선장, 물양장, 등대, 어항(魚港) 등
	일상경관	어촌경관, 산업경관, 해녀촌 등
	자연지형	해안지형 변화 양상 등
	해양 문화재	전통선박, 항해 표식, 해양문화 관련 기록 등
무형 문화경관	해양산업	조선업, 수리조선업, 물류업, 수산업 등
	연안·해양 문화	해녀문화, 풍어제, 천일염업, 양식업, 어로(죽방렴 어업, 빨배 어업, 때배 어업), 해상교역 등
	지명	피항지/나루터 지명, 어업 및 어장 인근 지형 관련 지명, 시기별 지명 변화 등

자료: 김예림 2024; 김예림, 성종상 2023b; 김예림, 성종상 2016; 황재희, 강창우, 김예림 2023; Westerdahl 1992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으로 나눌 수 있다. 유형 문화경관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자연경관, 산업경관 및 시설물, 일상경관, 자연지형, 해양문화재 등이 있다. 무형 문화경관은 해양산업, 연안·해양 문화, 지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연안지역 문화경관 중에서 특히 무형 문화경관의 경우, 옛 기록이나 아직 생존하는 사람들의 기억을 통해 경관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해녀문화를 대상으로 <표 6>의 해석체계를 적용하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다.

문화적 차원의 기억은 해녀에 대한 역사 관련 단행본, 학술논문, 온라인 게시글, 영상, 노래 등 다양한 매체를 검토하고, 기록에 나타난 해녀촌 관련 지명을 파악하며, 해녀박물관 방문, 공연 관람, 체험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텍스트 유형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한 해녀문화, 아

레나 유형에서는 해녀들의 생계공간인 해녀촌과 물질구역 관련 지명과 경관의 변화, 퍼포먼스 유형에서는 해녀들의 의식이나 공연, 체험프로그램 등에 대해 설명한다.5)

내면적·사회적 차원의 기억은 시대의 증인이라 살아있는 무형 문화경관인 해녀들과 해녀촌 매니저 등과 같은 이해관계자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연구할 수 있다. 심층 인터뷰 내용을 '형성' 과정에서는 일상적 기억이 문화적 기억으로 형성되는 시점과 상세한 사항을 기술한다. '저장/전환' 과정에서는 문화적 기억이 매체에 저장되거나 정부사업 시행 또는 미디어 개입 등과 같은 특정 사건으로 인해 기억이 전환되는 사실을 해석한다. '전승' 과정에서는 다른 세대나 집단에 해녀문화 관련 문화적 기억이 전달 및 공유되는 내용과 방식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표 6>의 해석체계를 적용하면, 문화적 기억의 양상과 과정을 파악하여 연안지역 문화경관의 적용 사례 예시인 해녀문화가 변화되는 요인을 해석할 수 있다. 기록이 부족하고 관련 기억도 소실되고 있는 해녀문화에 대해 변화하는 요인을 체계적이고 다차원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표 6>의 해석체계는 유용하다. 더불어 이 해석체계를 활용하면 기존 역사 기록에서는 미처 포착하지 못한 숨겨진 연안지역 문화경관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낸다는 의의가 있다.

V.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에서는 연안지역 문화경관을 다각도에서 검토할 수 있는 문화적 기억 이론 기반의 해석체계를 제시

5) 관광은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을 재생하는 수단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음(김예림 2017). 해녀촌은 현대에 들어 관광목적지로 많이 이용되고 있고, 기존 기능에서 많이 변화되고 있음. 따라서 시간의 흐름과 외부의 개입에 따른 변화를 해석하는 것은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임.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고, SNS를 통해 장소에 대한 정보와 경관 사진이 온라인으로 공유되면서 새로운 장소 이미지가 형성되거나, 전에는 주목받지 않았던 곳들이 유명한 사진 명소가 되기도 함(Kim and Son 2018). 이러한 맥락에서 해녀촌이라는 장소가 형성되었다가 관광지화 되어가는 '과정'을 문화적 기억의 관점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음.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문화적 기억 이론을 기반으로 매체에 저장되어 일시적으로 고정된 '문화적 차원의 기억'은 '유형적' 속성으로,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내면적·사회적 차원의 기억'은 '과정적' 속성으로 다루는 해석체계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문화적 차원의 기억'은 '기록과 현장답사', '내면적·사회적 차원의 기억'은 '이해관계자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해석하는 맞춤형 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더불어 연안지역 문화경관의 해석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특정 연안지역을 대상으로 해석체계를 적용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기록과 기억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연안지역 문화경관의 양상을 파악하고, 그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해석체계는 추후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넓은 연안지역에서 다양한 문화경관을 해석하는 데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수상레저 등에 초점이 맞추어진 해양관광의 범위를 해양유산 관광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정책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로 연안지역 문화경관을 실증적으로 조사하는 해석체계로 적용하여 현세대가 연안지역 문화경관의 가치에 공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GTITLE01&menuId=M_01_03_01#content-group(2023년 11월 1일 검색)
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문화.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424006&searchKeywordT0=3 (2023년 11월 3일 검색).
3. 관계부처합동(2018.6.28), '어촌지역의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어촌뉴딜 300」 추진계획'
 Joint Government Ministries (June 28, 2018), '「The Fishing Village And Fishery Harbor New Deal 300 Project」 Implementation Plan for Leading Innovative Growth in Fishing Village Areas'.

4. 김무한, 박재민, 조성아. 2018. 장소기억 개념을 활용한 철원군 유곡리 통일촌의 장소브랜딩 연구. IDI 도시연구 14호: 213-234.
 Kim Moohan, Park Jae-Min and Cho Seong-Ah. 2018. Place branding using place memory of Yugok-ri Tongil-chon (Unification Village). *Korean Journal of Urban Studies* 14: 213-234.
5. 김병완, 김영재. 2020. 근대역사경관의 보존과 집단기억: 오타루시 산업유산경관을 사례로. 국토계획 55권, 2호: 29-43.
 Kim Byung-Wan and Kim Young-Jae. Preservation of modern historic landscape and collective memory: A case study of industrial heritage landscape in Otaru-City.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55, no.2: 29-43.
6. 김응중. 2011. 피에르 노라의 『기억의 장소』에 나타난 '기억'의 개념. 프랑스사 연구 24호: 113-128.
 Kim Eung-Jong. 2011. The concept of 'memory' in Les Lieux de Mémoire by Pierre Nora. *Korean Journal for French History* 24: 113-128.
7. 김예림. 2024. 연안지역 문화경관의 변용에 대한 해석: 부산 영도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Kim Yelim. 2024. *Interpretation of the Cultural Landscape Transformation in Coastal Regions. Yeongdo, Busan*. Ph.D. Diss. Seoul National University.
8. 김예림. 2017. 전통시장의 관광지화 및 지원정책에 대한 이용객들의 인식: 통인시장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45, no.6: 76-89.
 Kim, Yelim. 2017. Perception of Visitors on Traditional Marketplaces becoming Tourist Attractions and Supporting Policies: Focused on Tongin Market, Seoul.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45, no.6: 76-89.
9. 김예림, 성종상. 2023a. 해양문화경관의 개념 고찰. 국토연구 117권: 121-144.
 Kim Yelim and Sung Jong-Sang. 2023. A study on the concept of maritime cultural landscap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117: 121-144.
10. 김예림, 성종상. 2023b. SNS 텍스트마인딩을 통한 부산 영도의 관광객 핫플레이스 도출 및 유형분석. 한국지역개발학

- 회지, 35, no.1: 121-141.
- Kim, Yelim and Sung, Jong Sang. 2023. Analyzing tourism hotspots and types of Yeongdo, Busan through social media text mining.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35, no.1: 121-141.
11. 김예림, 성종상. 2016.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제주 신양항 리모델링 계획. *한국조경학회지*, 44, no.2: 52-69. Kim Yelim and Sung Jong-Sang. 2016. Jeju Shinyang Fishing Port Remodeling Plan Utilizing Marine Tourism Resources.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44, no.2: 52-69.
 12. 김예림, 손용훈. 2017. 이화동 벽화마을 주민과 관광객간의 장소 정체성 인식 및 경관 선호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45, no.1: 105-116. Kim, Yelim and Son, Yong-Hoon. 2017. Difference of Place Identity Perception and Landscape Preference between Residents and Tourists in Ihwa-dong Mural Villag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45, no.1: 105-116.
 13. 김홍중. 2008. 골목길 풍경과 노스탤지어. *경제와사회* 77호: 139-168. Kim Hong-Jung. 2008. The landscape of alley and nostalgia. *Economy and Society* 77: 139-168.
 14. 박재민, 김무한. 2014. 장소기억을 통한 문화경관의 층위 해석. *한국조경학회지* 42권, 2호: 10-18. Park Jaemin and Kim Moohan. 2014. An interpretation of the cultural landscape by using adjectives on place memory of local peopl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42, no.2: 10-18.
 15. 배연한, 강동진. 2017. 부산 영도의 근대 도시경관 변천: 문화경관적 관점. *국토연구* 94권: 21-39. Bae Younhan and Kang Dongjin. 2017. The transition of the modern urban landscape of Yeongdo district in Busan: The perspective of cultural landscap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94: 21-39.
 16.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 부산의 역사와 문화. 부산: 부산대학교 출판부. Pusan National University Korean Studies Institute. 2009. *Busan's History and Culture*. Busan: Pusan National University Press.
 17. 서영호. 2022. 증언하기와 네트언어, 소통적 기억의 포섭: 유튜브의 문화기억. *한국언어문화* 79호: 143-164. Suh Young ho. 2022. Witnessing, netspeak and embracing communicative memory: Cultural memory on YouTube. *Journal of The Society of Korean Language and Culture* 79: 143-164.
 18. 성종상. 2020. 세계유산으로서 문화경관의 가치와 의미 재 조명. 세계유산의 새로운 해석과 전망. (사)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창립 20주년 기념. 서울: 유네스코회관. Sung Jong-Sang. 2020. Reinventing the value and meaning of cultural landscape as world heritage: New interpretations and perspectives of world heritage. In *Proceedings of Celebrating the 20th anniversary of ICOMOS-KOREA*. Seoul: UNESCO Hall.
 19. 오정심. 2023.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문화경관' 유형과 특성 연구: 전라남도 신안군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재* 56권, 1호: 162-180. Oh Jungshim. 2023. A study on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Cultural Landscapes' with big data analysis: Focusing on the case of Shinan-gun, Jeollanam-do. *Korean Journal of Heritage, History and Science* 56, no.1: 162-180.
 20. 윤택림. 2013. 문화와 역사연구를 위한 질적 연구 방법론. 개정판. 강원: 도서출판 아르케. Yoon, Taekrim. 2013.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for Cultural and Historical Research. Revised Version*. Gangwon-do: Arche Publishing.
 21. 윤희호, 이훈, 송영민. 2011. 관광지 스토리텔링 형성과정에 대한 고찰: 아스만의 문화적 기억 관점을 중심으로. *관광연구* 26권, 1호: 267-286. Yoon Hyun-Ho, Lee Hoon, Song Young-Min. 2011. The study on the storytelling forming process of tourism destination: Focused on the cultural memory of Assmann.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and Sciences* 26, no.1: 267-286.
 22. 이도담. 2017. 문화적 기억과 장소에 관한 성찰: A.아스만의 『기억의 공간』을 중심으로. *철학과 문화* 36권: 70-91. Lee Do-dam. 2017. Cultural memory and reflection on location: Focus on A.Assmann's space of memory. *Philosophy and Culture* 36: 70-91.
 23. 임은진. 2012. 6.25 전쟁에 대한 문화적 기억과 장소. *문화역사지리* 24권: 155-166. Lim Eun-Jin. 2012. Cultural memory and place for the 6.25 War. *Journal of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y* 24: 155-166.
 24. 전종환. 2013. 도시 '본정통'의 장소 기억: 충무로 명동 일대

- 의 사례. *대한지리학회지* 48권, 3호: 433-452.
- Jeon, Jong-Han. 2013. Place memories of the downtown 'Bonjeong-tong': The case of Chungmu-ro-Myeongdong area in Seoul, Korea.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8, no.3: 433-452.
25. 채영희. 2021. 기술자료로 보는 피란민과 부산 정주민의 문화접변 양상. *인문사회과학연구* 22권, 1호: 189-213.
Chae Younghee. 2021. An aspect of cultural contact through the evacuees' oral history about their life in Busan. *Studie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2, no.1: 189-213.
26. 홍금수. 2009. 경관과 기억에 투영된 지역의 심층적 이해와 해석. *문화역사지리* 21권, 1호: 46-94.
Hong Keumsoo. 2009. The thick understanding and interpretation of the region through the vistas of landscape and memory. *Journal of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y* 21, no.1: 46-94.
27. 황기원. 2011. 경관의 해석.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Hwang Giwon. 2011. *Interpretation of Landscape*.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8. 황재희, 강창우, 김예림. 2023. 문화기반 항만 도시재생 사례 연구. *국토연구*, no.118: 21-41. Hwang Jaehee, Kang Changwoo, and Kim Yelim, 2023. Port City in Spatial Transition: A Case Study on Culture-led Urban Regeneration.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no.118: 21-41.
29. Anderson, J. 2013. 문화·장소·흔적: 문화지리로 세상 읽기. 이영민, 이종희 역. 경기: 한울아카데미. [원저 *Understanding Cultural Geography Places and Traces* (London and Newyork: Routledge, 1988)].
Anderson, J. 2013. *Understanding Cultural Geography: Place and Traces*, trans. Lee Yeongmin and Lee Jonghui. Gyeonggi: Hanul Publishing Group. [Original Book *Understanding Cultural Geography Places and Traces* (London and Newyork: Routledge, 1988)].
30. Assmann, Aleida. 2010. The Holocaust—A global memory? Extensions and limits of a new memory community. In *Memory in a Global Age. Discourses, Practices and Trajectories*, 97-117. London: Palgrave Macmillan UK.
31. _____. 2013. *Cultural Memory and Western Civilization: Functions, Media, Archiv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32. _____. 2017. 기억의 공간: 문화적 기억의 형식과 변천. 변학수, 채연숙 역. 개정판 4쇄. 서울: 그린비출판사.
_____. 2017. *Erinnerungsräume: Formen und Wandlungen des Kulturellen Gedächtnisses*, trans. Byeon Haksu and Chae Yeonsuk. 4th Edition. Seoul: Greenbee Pub. [원저 *Erinnerungsräume: Formen und Wandlungen des Kulturellen Gedächtnisses(4th edition)*, (München: Verlag C. H. Beck oHG, 2009)]
33. Assmann, Jan. 1995. Collective memory and cultural identity, trans. Czaplicka, John. *New German Critique* 65: 125-133.
34. _____. 2006. Form as a mnemonic device: Cultural texts and cultural memory. In *Performing the Gospel. Orality, Memory, and Mark*, eds. Horsley, Richard A., Draper, Jonathan A. and Foley, John Miles. Essays dedicated to Werner Kelber, 67-82. Minneapolis: Fortress Press.
35. _____. 2008. Communicative and cultural memory. In *Cultural Memory Studies: An International and Interdisciplinary Handbook*, eds. Erll A. and Nünning, A., 109-118. Berlin: Walter de Gruyter GmbH & Co.
36. _____. 2011. Communicative and cultural memory. In *Cultural Memories: The Geographical Point of View*, eds. Meusburger, P., Heffernan, M. and Wunder, E., vol.4: 15-27. Dordrecht: Springer Netherlands.
37. Ben-Amos, D. and Weissberg, L, eds. 1999. *Cultural Memory and the Construction of Identity*. Detroit: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38. Bollnow, Otto Friedrich. 2011. 인간과 공간. 이기숙 역. 서울: 에코리브르. [원저 *Mensch und Raum* (Stuttgart: W. Kohlhammer GmbH, 1963)].
Bollnow, Otto Friedrich. 2011. *Human Space*. trans. Lee Ki-sook. Seoul: Eco-livres. [Original Book *Mensch und Raum* (Stuttgart: W. Kohlhammer GmbH, 1963)].
39. Candia, C., Jara-Figueroa, C., Rodriguez-Sickert, C., Barabási, A. L. and Hidalgo, C. A. 2019. The universal decay of collective memory and attention. *Nature Human Behaviour* 3, no.1: 82-91.
40. Casey, Edward S. 2000. *Remembering. A Phenomenological Study*, 2nd edition. Indiana: Indiana University Press.
41. Claval, Paul. 2016. Changing conceptions of heritage and landscape. In *Heritage, Memory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New Perspectives on the Cultural Landscape*, ed. Whelan, Yvonne, 85-93. London and Newyork: Routledge.

42. Dwyer, O. J. and Alderman, D. H. 2008. Memorial landscapes: Analytic questions and metaphors. *GeoJournal* 73: 165-178.
43. Erll, Astrid. 2008. Cultural memory studies: An introduction. In *Cultural Memory Studies: An International and Interdisciplinary Handbook*, eds. Erll, A. and Nünning, A., 1-18. Berlin: Walter de Gruyter GmbH & Co.
44. Fortunati, V. and Lamberti, E. 2008. Cultural memory: A european perspective. In *Cultural Memory Studies: An International and Interdisciplinary Handbook*, eds. Erll, A. and Nünning, A., 127-140. Berlin: Walter de Gruyter GmbH & Co.
45. Halbwachs, Maurice. 1992. *On Collective Memory*, Trans. Lewis, A. Cos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Original Book *La Mémoire Collectiv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50)].
46. Helleland, B. (2012). Place names and identities. *Oslo studies in language*, 4, no.2: 95-116.
47. Hirst, W., Yamashiro, J. K. and Coman, A. 2018. Collective memory from a psychological perspective.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22, no.5: 438-451.
48. Hoelscher, S. and Alderman, D. H. 2004. Memory and place: geographies of a critical relationship. *Social & Cultural Geography* 5, no.3: 347-355.
49. Holdsworth, Deryck W. 1997. Landscape and archives as Texts. In *Understanding Ordinary Landscapes*, eds. Groth, P. and Bresso, T. W., 44-55.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50. Hoteit, Aida. 2015. Role of the landscape in the preservation of collective memory and the enhancement of national belonging. *Canadian Social Science* 11, no.3: 1-8.
51. Jacques, David. 1995. The rise of cultural landscapes.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1, no.2: 91-101.
52. Kim, Y. and Son, Y. H. 2018. The Role of Tourist Behaviour in The Determination of Tourist Attractions Emerging tourist destinations in Jeju Island, South Korea through self-wedding photography. *International Review for Spatial Planni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 6, no.4: 62-75.
53. Lewicka, Maria. 2008. Place attachment, place identity, and place memory: Restoring the forgotten city past.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8, no.3: 209-231.
54. Markowitsch, Hans J. 2008. Cultural memory and the neurosciences. In *Cultural Memory Studies: An International and Interdisciplinary Handbook*, eds. Erll, A. and Nünning, A., 275-283. Berlin: Walter de Gruyter GmbH & Co.
55. Manier, D., and Hirst, W. 2008. A cognitive taxonomy of collective memories. In *Cultural Memory Studies: An International and Interdisciplinary Handbook*, eds. Erll, A. and Nünning, A., 253-262. Berlin: Walter de Gruyter GmbH & Co.
56. Meusburger, Peter. 2011. Knowledge, cultural memory, and politics. In *Cultural Memories: The Geographical Point of View*, eds. Meusburger, P., Heffernan, M. and Wunder, E., vol.4: 51-69. Dordrecht: Springer Netherlands.
57. Molden, Berthold. 2016. Resistant pasts versus mnemonic hegemony: On the power relations of collective memory. *Memory Studies* 9, no.2: 125-142.
58. Middleton, D. and Brown, S. D. 2011. Memory and space in the work of Maurice Halbwachs. In *Cultural Memories: The Geographical Point of View*. eds. Meusburger, P., Heffernan, M. and Wunder, E., vol.4: 29-49. Dordrecht: Springer Netherlands.
59. Milo, Daniel. 2010. 거리 이름. 기억의 장소 2: 민족, ed. Pierre Nora, 441-492. 유희수 역. 경기: 나남. [원저 *Lieu de mémoire* (Paris: Editions Gallimard, 2005)].
- Milo, Daniel. 2010. *Le nom des rues. Lieu de mémoire*, ed. Pierre Nora, 441-492. trans. Ryu Hee-su. Gyeonggi: Nanam. [Original Book *Lieu de mémoire* (Paris: Editions Gallimard, 2005)]
60. O'keeffe, Tadhg. 2016. Landscape and memory: Historiography, theory, methodology. In *Heritage, Memory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New Perspectives on the Cultural Landscape*, ed. Whelan, Yvonne, 3-18.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61. Park Jae-min and Kim Moohan. 2018. Places of memory in the collective memory of locals in Janghang, Korea. *Journal of Recreation and Landscape* 12, no.4: 45-58.
62. Picard, Michel. 1997. Cultural tourism, nation-building, and regional culture: The making of a Balinese identity. In *Tourism, Ethnicity and the State in Asian and Pacific Societies*, eds. Picard, M. and Wood, R., 181-214.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63. Ratcliffe, E. and Korpela, K. M. 2016. Memory and place attachment as predictors of imagined restorative perceptions of favourite place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48: 120-130.
64. Rigney, A. 2005. Plenitude, scarcity and the circulation of cultural memory. *Journal of European Studies* 35, no.1: 11-28.
65. Rodriguez, J. and Fortier, T. 2007. *Cultural Memory: Resistance, Faith, and Identity*. Texas: University of Texas Press.
66. Sather-Wagstaff, Joy. 2015. Heritage and memory. In *The Palgrave Handbook of Contemporary Heritage Research*, 191-204. London: Palgrave Macmillan UK.
67. Smith, Philip. 2022. 문화 이론: 사회학적 접근. 한국문화사 회학회 역. 서울: 이학사. [원저 *Cultural Theory: An Introduction*(New Jersey: Wiley-Blackwell Publishing, 2003)].
Smith, Philip. 2022. *Cultural Theory: An Introduction*. trans. Korean Association for Cultural Sociology. Seoul: Ehaksa. [Original Book *Cultural Theory: An Introduction*(New Jersey: Wiley-Blackwell Publishing, 2003)].
68. Teo, C. B. C., Khan, N. R. M. and Abd Rahim, F. H. 2014. Understanding cultural heritage visitor behavior: The case of Melaka as world heritage city.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30: 1-10.
69. Thelen, David. 1989. Memory and American history. *Journal of American History* 75, no.4: 1117-1129.
70. Timothy, Dallen. J. 2021. *Cultural Heritage and Tourism: An Introduction*, 2nd Edition. Bristol: Channel View Publications.
71. Tuan, Yi-Fu. 2011. 토포필리아: 환경 지각, 태도, 가치의 연구. 이옥진 역. 서울: 에코리브르. [원저 *Topophilia: A study of environmental perception, attitudes, and valu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4)].
Tuan, Yi-Fu. 2011. *Topophilia: A study of environmental perception, attitudes, and values*. trans. Lee Ok-jin. Seoul: Eco-livres. [Original Book (*Topophilia: A study of environmental perception, attitudes, and valu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4))]
72. Waldheim, Charles. 2018. 경관이 만드는 도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이론과 실천. 배정환, 심지수 역. 서울: 한숲. [원저 *Landscape as Urbanism: from The Landscape Urbanism Reader*(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6)].
Waldheim, Charles. 2018. *Landscape as Urbanism: from The Landscape Urbanism Reader*. trans. Bae Jeong-han and Sim Ji-soo. Seoul: Hansooop. [원저 *Landscape as Urbanism: from The Landscape Urbanism Reader*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6)].
73. Weissberg, Liliane. 1999. Introduction. In *Cultural Memory and the Construction of Identity*. eds. Ben-Amos, D. and Weissberg, L., 7-26. Detroit: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74. Welzer, Harald. 2008. Communicative memory. In *Cultural Memory Studies: An International and Interdisciplinary Handbook*. eds. Erll, A. and Nünning, A., 285-298. Walter de Gruyter GmbH & Co.
75. West, Christina. 2011. Memory—recollection—culture—identity—space: Social context, identity formation, and self-construction of the Calé (Gitanos) in Spain. In *Cultural Memories: The Geographical Point of View*, eds. Meusburger, P., Heffernan, M., and Wunder, E., vol.4: 101-119. Dordrecht: Springer Netherlands.
76. Westerdaahl, Christer. 1992. The maritime cultural landscape. *International Journal of Nautical Archaeology* 21, no.1: 5-14.
77. Winter, Tim. 2016. Landscapes in the living memory: New year festivities at Angkor, Cambodia. In *Heritage, Memory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ed. Whelan, Yvonne, 145-160.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78. Zierold, Martin. 2008. Memory and media cultures. In *Cultural Memory Studies: An International and Interdisciplinary Handbook*, eds. Erll, A. and Nünning, A., 399-407. Berlin: Walter de Gruyter & Co.

-
- 논문 접수일: 2024. 1. 16.
 - 심사 시작일: 2024. 2. 27.
 - 심사 완료일: 2024. 3. 6.

요약

주제어: 해양문화경관, 해안경관, 장소정체성, 유산 관리, 집단적 기억, 경관 인식

연안지역 문화경관은 인류가 해양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한 흔적으로, 내륙과 구별되는 문화적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해석체계가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 증가하는 문화적 기억에 대한 담론을 기반으로 연안지역 문화경관의 해석에 적용할 수 있는 해석체계를 제안한다.

문화적 기억 이론은 내면적, 사회적, 문화적 차원의 기억을 다루고 있기에, 문화적 기억 관점에서는 다각도에서 연안지역 문화경관을 해석할 수 있다. 문화적 차원의 기억은 미디어에 저장되면서 일시적으로 고

정된 형태이기에 유형별로 텍스트, 아레나, 퍼포먼스 등 세 가지 해석 방식을 활용하였다. 내면적·사회적 차원의 기억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현재진행형 기억이기에 형성, 저장/전환, 전송 등 과정별 해석 방식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해석체계는 연안지역 문화경관 실증적 조사에 기여할 것이며, 이를 통해 현 세대가 이들의 가치에 공감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